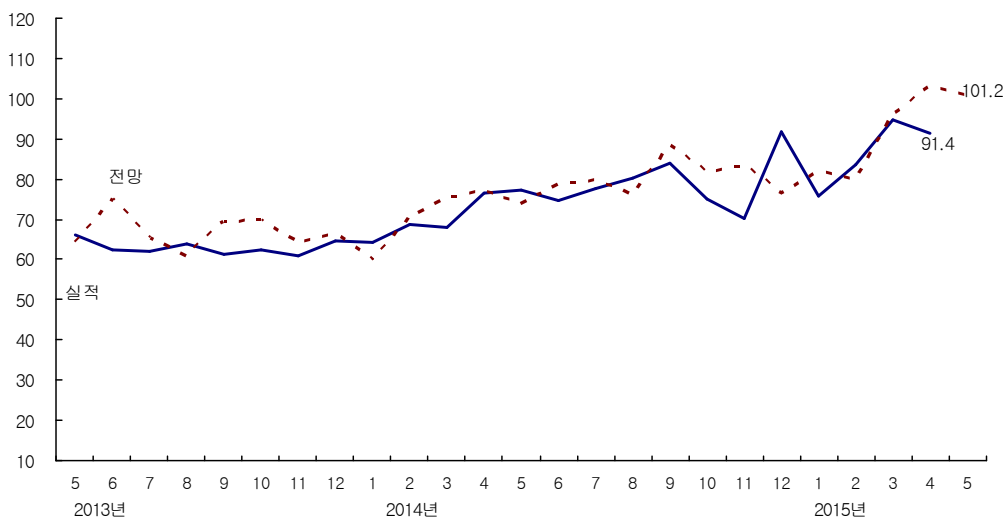


2015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4월 CBSI 3.5p 하락한 91.4 기록
 통계적 반락 효과로 소폭 하락, 수치는 비교적 양호

- 2015년 4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5p 하락한 91.4를 기록함.
 - CBSI는 주택경기 회복, 계절적 요인 영향으로 지난 2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해(11.4p 상승) 전월인 3월에는 5년 6개월 내 최고치인 94.9를 기록했다.
 - 4월 들어 CBSI가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주택경기, 계절적 요인에 부정적 요인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지난 2개월 동안 지수가 큰 폭 상승한데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일부 작용한 때문으로 판단됨.
 - 특히 3월 지수가 호조세를 보인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하락해 4월 CBSI 하락을 주도한 반면, 그동안 지수 상승폭이 작았던 중소기업체 지수는 상승한 것을 볼 때도 통계적 반락 효과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음.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그러나, 4월 CBSI 수치 자체는 91.4로 작년 12월 91.7, 올해 3월 94.9를 제외하면, 2009년 9월의 96.1 이후 최고치여서 여전히 비교적 양호한 체감경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CBSI 수치가 아직 기준선(100)에는 못 미쳐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호황 국면에 접어든 것은 아님.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그 동안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는 하락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했음.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7.1p 하락한 108.3을 기록하였으나 5개월 연속 기준선을 상회하였음. 지수가 5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을 상회한 것은 지난 2005년 2월~7월의 6개월 연속 이후 처음으로서 대형업체의 체감경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8.5p 하락하여 94.6을 기록했음. 하지만 지수 자체는 작년 12월, 올해 3월을 제외하고 2009년 10월 이후 최고치여서 비교적 높은 수준임.
-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6.4p 상승한 67.9를 기록했음. 그동안 대형, 중견업체에 비해 그동안 상승폭이 작았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4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4.5	77.7	80.2	83.9	74.9	70.4	91.7	75.8	83.5	94.9	91.4	103.2	101.2	
규모 별	대형	92.3	100.0	92.3	108.3	92.3	92.3	100.0	100.0	115.4	108.3	138.5	125.0	
	중견	73.3	75.8	83.3	80.0	78.8	70.0	97.0	71.9	90.6	103.1	94.6	93.8	94.6
	중소	55.1	53.8	62.5	59.6	50.0	45.1	76.0	51.9	56.0	61.5	67.9	72.5	80.8
지역 별	서울	83.7	90.2	89.2	95.4	85.4	85.8	94.4	86.2	98.0	107.9	102.5	119.8	112.5
	지방	60.8	58.8	67.4	67.0	59.6	47.5	87.9	60.7	62.2	75.1	75.6	77.8	85.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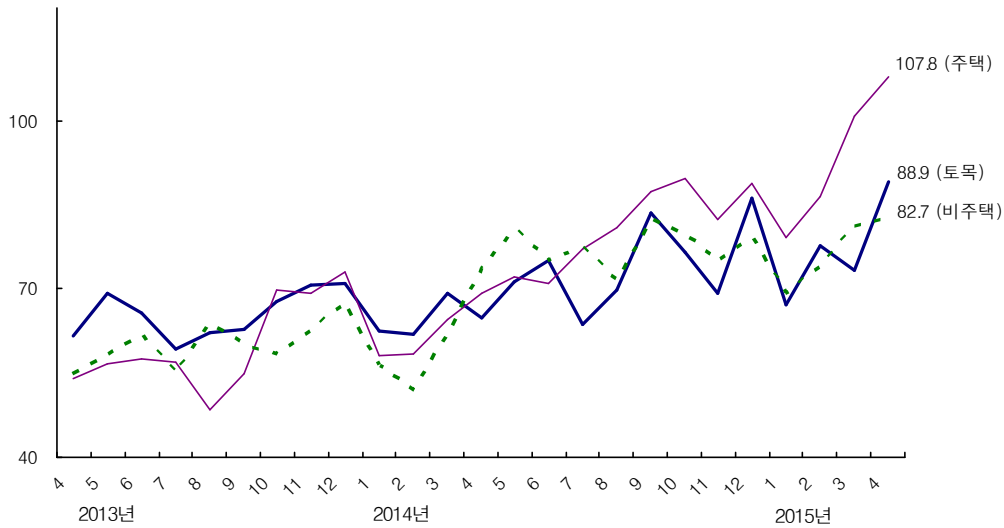
- 2015년 5월 CBSI 전망치는 4월 실적치 대비 9.8p 높은 101.2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건설업체들이 5월에는 건설경기가 4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5월 전망치 101.2는 지난 4월의 전망치에 비해 소폭(2.0p) 하락한 수치이나, 전망치가 2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을 상회함으로써 다수의 건설업체가 계속해서 향후 건설경기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음.
- 하지만 대형업체의 전망치가 125.0인데 비해 중견업체는 94.6, 중소기업체는 80.8을 기록해 기업 규모별로 건설경기 회복 전망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 5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업체가 전월보다 5.4p 하락한102.5, 지방 업체가 0.5p 상승한 75.6을 기록함.
 - 비록 서울업체 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하였지만, 기준선(100.0) 이상으로 여전히 양호한 상황임.
 - 한편, 지방업체 지수 75.6은 4월 실적으로는 지난 13년 내 최대치로 예년에 비해서 침체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

**2015년 4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
14.2p 상승한 99.0 기록**

- 2015년 4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4.2p 상승한 99.0을 기록 기준선(100)에 근접함.
 - 공사 물량 지수는 올해 1월에 전월 대비 23.5p 하락한 70.9를 기록했음.
 - 이후 2월과 3월 각각 13.9p, 2.4p 증가했으며, 4월에도 14.2p 상승하는 등 3개월 연속 회복세를 시현, 양호한 모습을 지속함.
 - 또한, 4월 물량지수 99.0은 지난 2002년 12월 103.5를 기록한 이후 12년 4개월 만에 최대치임.
 -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주택공사 물량의 회복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영향을 미친 가운데, 정부 공공공사 발주 물량도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공종별로 모든 공종에서 전월보다 지수가 증가한 가운데, 주택과 토목 물량지수의 상승이 두드러짐.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5.7p 상승한 88.9를 기록 지난 2009년 12월 97.3을 기록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정부의 토목공사 발주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보다 7.2p 상승한 107.8로 공종별로는 유일하게 기준선 100을 넘어섰으며, 지난 2002년 11월 108.3을 기록한 이후 1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보다 1.6p 상승한 82.7로 소폭 증가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과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8.2p 상승한 118.2를 기록함. 주택물량지수가 125.0을 기록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116.7, 108.3을 기록해 모두 양호했음.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00을 기록함. 주택이 125.7을 기록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81.1, 75.7을 기록함.
 - 한편, 중소기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7.8p 상승한 75.5를 기록함. 4월 지수로는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예년에 비해 물량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공종별로, 주택이 67.3,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65.4, 60.8을 기록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 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99.0	118.2	100.0	75.5	112.0	80.7
	전망	104.1	127.3	97.3	84.6	115.0	88.7
토목	실적	88.9	116.7	81.1	65.4	104.7	66.4
	전망	90.3	108.3	83.8	76.5	98.7	78.2
주택	실적	107.8	125.0	125.7	67.3	125.7	82.2
	전망	113.4	141.7	114.3	79.2	130.7	88.5
비주택	실적	82.7	108.3	75.7	60.8	97.1	62.1
	전망	90.9	116.7	81.1	72.0	103.7	72.5

주 : 실적은 2015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5월 예측지수임.

- 2015년 5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4월보다 5.1p 상승한 104.1로 전망함.
 - 주택 물량지수가 113.4로 공종별로 가장 수치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토목과 비주택은 각각 90.3, 90.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결과적으로 5월에도 주택 물량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토목과 비주택 물량의 침체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조달 상황 다소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가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금조달 지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2.6, 104.7을 기록해 두 지수 모두 기준선을 상회함.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인력 및 자재수급에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3.7, 90.2을 기록하여 각각 3.8p, 3.0p 하락하였음. 인건비 지수는 2011년 12월 81.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서 근래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인건비가 다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재비 상황도 다소 악화되고는 있으나 저물가,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으로 90선을 상회하고 있음.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96.6, 84.3으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96.6	100.0	100.0	88.7	100.0	91.7
		전망	97.8	108.3	91.9	92.3	101.9	92.1
	자금조달	실적	84.3	91.7	88.9	70.6	93.3	71.6
		전망	85.9	91.7	86.5	78.4	91.8	77.4
인력	수급	실적	102.6	108.3	105.7	92.5	110.9	90.7
		전망	99.1	108.3	97.2	90.4	106.0	89.1
	인건비	실적	83.7	100.0	78.4	70.6	91.1	73.0
		전망	84.4	100.0	75.7	76.0	89.5	77.0
자재	수급	실적	104.7	108.3	108.3	96.2	110.9	95.9
		전망	105.8	108.3	113.5	94.1	113.9	94.2
	비용	실적	90.2	108.3	86.5	73.1	100.9	74.9
		전망	87.4	100.0	86.1	74.0	95.7	75.5

주 : 실적은 2015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5월 예측지수임